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37호 현대불교

29

2011년 5월 25일(음 4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이 세상 모든 만물만생이 근본에 따라서 하나로 돌아간다

대구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죽고 살고 하는 이 도리가 바로 부처님 도리입니다. 우리 삶을 따져서는 부처님 법도 없을 것이고 우리 자체가 없이는 부처님도 없을 것입니다.

'불(佛)'이라 하는 것은 일체 생명의 근본이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敎)'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면서, 또 통신과 통신으로 통신을 하면서, 말과 말로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佛敎)라는 그 단어는 전체 삼천대천세계가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머리를 꺾고 승복을 입고 목탁을 치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라 전체, 생명이 있는 것, 움직여지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다 불교인 것입니다.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라 전체, 곤충 한 마리의 생명도 생명이 있으니만큼 불어요, 지수화풍도 불어요, 모두가 불이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불교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한마음으로 공생·공용·공체·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쭙 달리 종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삶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불자로 하여금 광대무변하며 더하고 덜함도 없는 이 진리 자체가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마음을 넓게 써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고정된 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머리를 꺾고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고정되게 보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꺾은 것은 이 세상만사가 천차만별로 고정됨이 없이 무상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무명초라고 해서, 그릇을 비운다는 뜻에서 다 깎아 버린 겁니다. 승복이라는 것은 순색을 표현한 것으로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뜻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나 귀중한 옷인지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돌아가



그림 · 최주현

고, 과일나무도 10리 안팎으로, 아니 20리 30리라도 서로 말 없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를 모시면서 말로만 그르니 옳으니 시비를 해서 어떻게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마음과 마음의 전달로써 자녀들과 부모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이 나가서 자고 들어오고 나쁜 일만 저지르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것이 이루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말로다가 몸을 붙잡으려고 하고 몸으로다가 몸을 붙잡으려고 한다

면 붙잡아지지 않는다.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바로 이 세상만사가 다 마음의 근본에 가설이 돼 있다. 그러니 우주간 법계가 다 그렇게 같이 상응하면서 돌아가는 사실을 알아라. 아들이라고 알고, 부모라고 아는 생각이 바로 가설되었다는 것이다. 가설이 돼 있으니 내 주인공에 맞다면 함께 돌아가게 된다. 즉 말하자면 내가 있음으로써 바로 불이 들어올 수 있고, 불이 켜질 수 있고 불이 꺼질 수 있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생명의 근본이 돌이 아니듯이, 전력이 돌이 아니듯이, 금속이 돌이 아니듯이,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니까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전력이나 금속을 끌어 쓰는 데에 달렸다. 모든 것은 거기에 있으니 거기에서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할 때 비로소 아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바로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서 밝게 살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해 드렸죠. 그랬더니 마음으로 그대로 하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해 주면서 안으로 놓고 굴리고 하니 너무 착해졌습니다. 그 사람 하나 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실법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본과 마음을 내는 거와 육신이 움직여지는 그 자체가 같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

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체 만물만생이 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또 먹고 삽니다.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광력이나 자력 통신력 전력, 이것이 항상 우리 들한테 재료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재료로 주어져 있으니 마음과 마음이 삼천 년 전이든 삼천 년 후든 언제든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8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어떤 분들은 4월 8일에만 부처님이 오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한 그 마음속에는 항상 부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네 가지 재료가 다 있다고 그랬죠?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 광력이 전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고요. 주어져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한 바구니에 담긴 쫄면 한 바구니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다 꿰뚫어서 맛을 알고 보고 감촉하고 그 모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로 합쳐 여러분으로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나눠면서 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 보지 않아서 맛 모르는 것은 생각도 나지 않듯이, 중생들은 마음을 널리 내려야 낼 수가 없습니다. 내 몸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을 널리 내시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아니 되시는 게 없고, 어느 모습 하나 부처 모습 아닌 게 없고, 어느 자리 하나 부처 자리 아닌 게 없고, 어느 생명 하나 부처 생명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한생각으로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을 다 내 마음 아닌 게 없이 나누시는 데 대하여, 내 몸 바깥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사람들 자체가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저 기도나 하고 이러는 게 부처님 법인 줄 아시고 철성 찾고 독성 찾고 또 약사 찾고 지장 찾고 이렇게 갈갈이 나누어 서 찾는데 말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버지나 한 어머니가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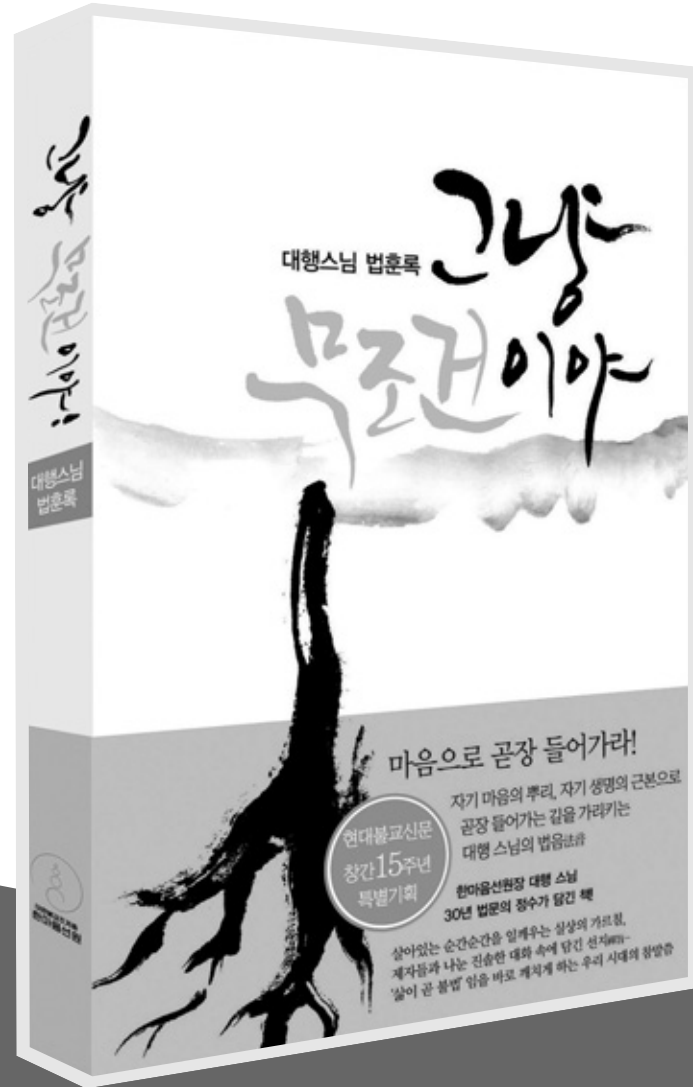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내 마음속에 나를 끌고 다니는 자성부처가 있습니다

29면에서 계속

자동적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자동적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때에 따라서 “어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되고 “여보게!” 하면 사위가 되고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뜻과 말과 행이 화해서 바뀌면서 생활을 여여하게 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놓고 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 부처를 안 하면 이사를 가지 못한다는 생각 자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주어진다 고 봅니다. 이제는 개선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 한생각을 잘 돌리다면 너무도 광대무변한 도리에 의해 밝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법이며 우리들의 자유스런 생활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책을 봐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생각을 해 봤다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구에 와서 여기 들어올 때까지, 지금까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이 서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그릇이 무조건 어느 거든지 다 받아들여서 내 거를 만들고 내가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둘 아닌 둘 리를 가져야만 아주 마음과 마음이 편안하게 돼서 나도 여러분한테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의 그릇을 텅 비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량을 가져야만 서로가 다 편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절에서 예불을 모실 때 ‘계향(戒香) 정향(定香) 해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염불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천하려는 겁니다. 꽃을 공양 올릴 때도, 여복하면 꽃공양입니까?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움을 꽃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초를 켜는 그 마음 자체를 바로 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기 물을 떠서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향을 피우는데, 약한 것은 다스리면서 선하고 아주 딱바른 마음을 내서 끌리는 것이 바로 향을 피우는 것이며 마음의 향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생겼고

부처님도 생겼고 종교도 생겼고 상대성 원리가 모두 생긴 것이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어찌 부처님 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발견하라 하는 겁니다.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것과 같으니 바깥으로 찾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찾으세요. 법당에 가더라도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모든 것을 동결시켜 내 주인공에 놓고 ‘떠려야 될 수 없는 내 친구여! 나를 관리인으로, 시자로, 또는 심부름꾼으로 삼아 이렇게 똥똥이를 끌고 다니니 모든 것은 다 당신이 하는 거야.’ 하시라는 겁니다. 이

이 옳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니 잘못했든지 잘못했든지 내 탓으로 돌리다면 그게 바로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또는 깨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염불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계향이지 그냥 입으로만 부르라는 계향이 아닙니다. 250계든 280계든 일일이 개수로 따져서 어떻게 계를 지킵니까? 나 하나만 죽는다면 계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하나만 잘 지켜도 천차만별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으며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향이니, 이 세상 모든 만물만생이 근본에 따라서 하나로 돌아옵니다. 내 마음속에 바로 주인

사랑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계의 나 자체를 물질계로 내놓으면서 우리가 서로 둘 아니게 풀리면서 참다운 삶을 보람 있게 누릴 것입니다.

해탈향이니, 만물만생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 모두가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 항상 밝아서 여여하니 바로 그것이 해탈향입니다. 항상 마음과 마음이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전달이 되면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게 돼서 여여하니, 항상 밝아서 안팎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중생들을 둘로 보지 않고 제도하게 돼서 가고 오면서도 그대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하면 화신이요 응신이라. 마음 하나가 이렇게 구족하고 이렇게 광대무변한 평등공법이면서도 활공공법이고 활공공법이면서도 수레공법으로서 이 세상을 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컵도 흙을 물에 개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구운 것으로 어느 것 하나 지수화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컵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수화합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살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데 합쳐져서 합성체로서 등장이 됐다. 흙이 지면 물로 갈 거는 물로 가고 불로 갈 거는 불로 가고, 바람으로 갈 거는 바람으로 가고 흙으로 갈 거는 흙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모이게 되면 또 모습을 바꿔 가지고 형성돼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주어지고, 현실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집니다. 미래가 주어지는 자체가 바로 오늘날의 것입니다. 미래가 따로 있고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옥도 천당도 바로 현실에,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수화합이 대두가 돼서 광력이나 전력 지력 통신력이 여러분 앞에 충만히 주어지는 사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도 마음과 마음, 정신계의 50% 물질계의 50%가 서로 상응하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맥 동맥이 뛰듯이 말입니다. 지구가 우리를 끌고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자생중생들부터 제도하러 이런 말입니다. 안팎으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터져서 때도 내가 생각해 보고 내가 내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면서 상대방을 원망 안 하고 돌아간다면, 바로 상대방에서도 불이 켜지고 자기한테도 불이 켜져서 다 밝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3년 6월 6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한생각을 잘 돌리다면 너무도 광대무변한 도리에 의해 밝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법이며 자유스런 생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 보십시오. 집이 험악하면 집에 들어 있는 주인이 고집니까, 험악한 집이 고집니까? 반드시 집주인이 집을 고집니다. 그렇듯이 세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끌 수 없고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바로 자성부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면서 제도해야 여러분이 제도가 되고 깨진 다이 소립니다.

그래서 첫째 ‘계향’ 할 때 말입니다. 먼저 내가 태어난 까닭에 계향이라는 것도 있고 계율을 생겼고, 또 스님 노릇도 하고 부처님 법도 배우고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머물러 있고 안 깔고 이 걸 떠나서,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에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이런 거지 내 탓으로 돌리다면 하나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지 누구 탓이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할 때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거기에 났을 때에 미움도 사라지고 증오도 없애고, 남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화목

공 선을 세워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기 놓고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기 놓고 ‘잘못 일어나게 한 것도 너니까 잘 일어나게 하는 것도 너지.’ 하고 잘못되는 거는 한생각 잘 내서 돌려놓으면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향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하찮게 듣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린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 줄 때에 서로 조건 없는 사랑을 같이 할 수 있고,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재수도 있을 수 있고, 공덕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생활을 바로 여여하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해탈이니,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둘로 봄이 없이 관찰하고 둘로 보지 않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리고 느끼고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러나 스님네들만 ‘정향 해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둘로 보지 않는 사랑,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씨, 부드러운 말, 이것을 떠나서는 화목을 가져올 수가 없고

해탈지견향이니, 삼라만상 만물만생을 생각하고 보살피고 밝게 보살핌이 항상 걸림 없이 구족한 까닭에 더하고 덜함도 없이 여여함을 바로 해탈지견향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부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이 있느냐. 너는 해탈지견향까지 이루었다 하더라도 첫째에 믿음에 있어야 하고 둘째, 다 버려서 다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셋째, 너는 누가 보시를 해 달라고 하든지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조건 없는 사람으로서 일체 만물만생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거니와 내 도량 아님이 없이 나누면서 아픈 사람에게는 약사가 돼서 응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관세음어 돼 주시고, 병이 짧은 자에게는 칠성이 돼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가는 사람에게는 지장이 돼 주시고, 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용신이 돼 주시고,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독신이 돼 주시고, 관청의 일이 벌어졌을 때는 독성이 돼 주시고... 천차만별로 어느 거 하나 하나 아니 돼 주시는 게 없고, 아니 나투시는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백억화신이요, 천백억응신이요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면 범신이요 움직여라

간강백채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장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로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형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최음(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열암,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썩뜯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뜯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뜯(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질환,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편안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입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어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문의전화: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임 (조함자건강메트, 오십전조개, 오주배개등 자매포대양)

◆문의전화: **금강의료기 (02)723-0099**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서
*오십전,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더운 것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신체 현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손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롬비니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 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롬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롬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공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오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롬비니는 담배 크 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롬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튼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고희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법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용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 규격 8.5×5.2×2.0cm
■ 가격 34,000 (간전지 포함)

롬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롬비니, 아담타(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롬비니, 아담타,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롬비니, 아담타, 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문의전화: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미얀마 성지순례

조기 예약 할인 7월 27일 출발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2,000,000원 → 1,770,000원 (할인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2,100,000원 → 1,850,000원 (할인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1박류 | 파타야**
9일 2,300,000원 → 2,050,000원 (할인가)

가족방학 특선 장사 | 장가게 5일 940,000원

※ 포함 : 특급호텔, 최고의 식사, 가이드+기사팀포함 여행사 대표가 직접 여러분을 모십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베트]